

# 목포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관광목포' 홍보

### '2023 한국주간' 참가해 관광 자원·수출용 김 상품 등 알려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1인당 최대 5~6만원 파격 인센티브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붉은 영웅의 땅'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목포, 미식관광도시 목포'를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울란바토르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2023 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해 몽골 국민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포의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한국주간은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관광 성수기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몽골 국악공연, 한국국기원 태권도시범, K-POP 콘서트 등이 펼쳐지고, 몽골 소재 한국 공공기관과 한국기업 등이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관광홍보 특별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몽골에서의 K-콘텐츠에 대한 높은 인기와 열망을 고려해 목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실사 홍보사진으로 제작한 포토스팟을 활용 목포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올해 목포시를 방문한 몽골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 1인당 최대 5만~6만원 지급하는 파격 인센티브까지 적극 홍보했다.

또 방문자에게는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품, 젊은층이 선호하는 한국 편의점 과자류를 제공해 인기를 독차지해 현장 홍보 열기를 더했다.

아울러 김 관련 식품에 대한 몽골 국민의 높



은 관심을 공략하기 위해 김스네, 김부각 등 간식류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김자반, 곰창김, 파래김, 김밥김, 조미김, 김가루 등 김 상품을 비치해 수출 촉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바다와 섬에 대한 동경이 크고,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몽골

국민에게 해양관광도시이자 영화와 드라마 인기 촬영지인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면서 "K-푸드로서의 높은 인기를 확인한 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김 가공업체들의 몽골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콩 수량 감소 예방 위한 관리 철저 병해충 방제·물관리 중요

전남 콩 주산지 무안군은 콩의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쫓이 피고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부터 병해충 방제와 물관리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당부했다.

노린재류는 콩 포장에서 쫓이 필 때부터 발생해 수확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콩 꼬투리와 종실의 영양분을 빨아 먹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방제해야 한다.

노린재류는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방제 효과가 매우 높지만 약제 살포 효과는 약 10일간 지속되므로 수량 감소를 막으려면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해야 한다. 노린재의 활동은 오후 2~4시 사이에 활발하므로 오전 시간대 또는 늦은 오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콩이 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시기는 완전한 균라이 형성되는 개화기에서 종실 비대기에 해당하며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꼬투리의 수가 감소하여 수량이 감소하고 종실 비대기에는 물이 부족하면 콩알이 작아진다.

이 시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개시설을 갖추고 토양에 적당한 수분이 스며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장오종 친환경농업과장은 "개화기부터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의 관리가 콩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절한 관리를 당부한다. 특히 약제를 살포할 때는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뿌려야 하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참고해 농약잔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조대호기자

## 영암군 미암면 지사협, 경로당서 '폼지락 사랑방' 운영

영암군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종필, 민간위원장 조만동)가 25일 마을 복지계획의 하나인 '폼지락 사랑방'을 진행했다.

폼지락 사랑방은 지사협 위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손수건 천연염색 체험, 악력기 소근육 운동, 기초건강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는 행사.

이날 미암면지사협 위원들은 미촌·춘동·신정 경로당을 찾아 마을 어르신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더위를 피했다.

미암보건지소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도 체크했다. 조만동 미암면지사협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폼지락 사랑방을 어르신들의 성황 속에 마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사협 위원들과 어르신이 기뻐하는 활동들이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암군, 삼호읍서 민간부문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영암군이 25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읍이장단과 큰 호응 속에서 '2023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영암읍에 이은 영암군의 민간 부문 두 번째 청렴교육.

서상일 금곡서당 훈장은 교육에서 '영암의 역사와 리더의 자긍심'을 주제로 지역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렴한 영암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청렴이 기본인 영암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청렴 교육'은 영암군의 청렴 의지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희망하는 단체에 방문해 10월까지 진행되고, 다음달에는 학산면과 미암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농업인대학 한우반, 선진지 견학 실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28일 "함평군 농업인대학 한우반 교육생들이 지난 25일 경북 상주시 소재 발효 사료 공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함평 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효사료의 제조와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또한 견학 간 한우반 교육생들의 축산 농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업인대학 한우반 양문오 자치회장은 "남은 교육 과정도 열정적으로 배우고 수료해 함평 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안군 "싱싱한 왕새우 먹고 꽃구경하세요"

### 팔금도에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섬 왕새우 축제 개최

신안군은 황금사철나무로 아름다운 금빛 물결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 황금의 섬 팔금도에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섬 왕새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섬 왕새우 축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왕새우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자란 신안 왕새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왕새우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키토산이 함유된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신안 왕새우는 게르마늄

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맛과 영양 면에서 전국 미식가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다.

신안군은 방문객들에게 왕새우 할인 판매함과 동시에 즉석에서 다양한 왕새우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신안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 맞은 농·수 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제철 맞은 왕새우 맛도 보고 축제장 인근 황금사철 군락지와 벚꽃마편초꽃과 아스타 꽃이 만개 되어 있는 퍼플섬을 둘러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이명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